

3. 流通業體의 地方 進出 競爭

- (背景) 地方自治制度의 실시, 流通市場의 開放, 地方 商圏의 重要性 浮刻 등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地方 進出이 加速化되고 있음
- (現況) 大型業體는 주로 지방 大都市에 百貨店 형태의 진출이 활발하나, 中堅業體와 外國業體는 中小都市에 다양한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 (影響) 地方 商圏이 위축되고, 서울 依存性이 더욱 深化될 가능성도 있으나, 消費者들에게는 폭넓은 購買 機會과 서비스를 제공함
- (課題) 競爭業體, 地方業體, 外國業體 및 新種 業態 등과의 多面的 競爭에 대한 對應策이 요구됨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유통시장의 개방, 지방 상권의 비중 증가 등으로 유통업체의 지방 진출 가속화

- 流通業體의 競爭的 地方 進出의 背景
 - 地方自治制의 실시로 지역 경제의 活性化를 위한 각종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업체와의 시장쟁탈전이 격화되어 流通 構造의 改編이 불가피함
 - 地方 商圏이 人口나 經濟力에 비해 상대적으로 過小評價되어, 이제까지는 재래시장과 소규모 백화점 위주로 商圏이 구성되어 왔음
 - 서울과 지방간의 所得 隔差가 줄어들어, 지방 주민들도 보다 다양한 商品을 消費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함
 - 交通과 通信 施設의 발달로 서울업체의 地方 市場 接近이 용이해짐
 - 96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國內 流通市場의 全面 開放으로 외국업체의 진출이 예상됨
 - 마크로, 카푸 등 外國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일산·분당 등 서울 부근과 인천·대전 등 中部 以北 地域에 할인점 형태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음

- 主要 業體의 地方 進出 現況
 - 현대, 롯데, 신세계 등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5개 廣域市(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대한 新規 店鋪 設立이 활발함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대도시로 대형 업체의 진출이 많으며 중견업체와 외국업체의 진출도 활발

- 이밖에도 뉴코아, 한양유통, 미도파 등 국내 中堅業體와 外國業體들은 대중 양관점(GVS), 할인점, 편의점, 전문점 등의 다양한 형태로 大都市보다는 울산, 수원, 부천 등 中小都市에 相對的으로 집중하여 진출할 계획임
- 新規 百貨店은 기존 상권에 立地하기 보다는 驛, 터미널을 중심으로 하는 新商圏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음

<流通業體의 地方 大都市 進出 現況>

지역	업체	매장(평)	개점 시기	비고
부산	현대	8천 5백	95. 8. 26	
	롯데	1만 4천	95. 10	
대구	롯데	1만	98. 12	대구역사
인천	신세계	6천 7백	97. 12	터미널
	롯데	1만	98	
	한국 마크로	3천 8백	95. 10	외국업체
광주	신세계	8천	95. 8. 25	
	롯데	9천 3백	98. 12	
대전	신세계	9천	97. 12	대전역사
	롯데	6천 5백	98. 6	
	한국 카푸	3천	미정	외국업체

지방 상권의 위축 및 서울 의존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소비자들에게는 구매 기회가 확대

○ 地方 商圏에 미치는 影響

- 이제까지 地方 商圏을 兩分해오던 재래시장과 소형 백화점은 대형업체의 진출로 말미암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대형업체는 賣場 面積, 商品力, 顧客 確保 戰略, 便宜 施設 등에서 지방의 재래시장과 백화점을 압도하고 있음
 - 실제로 현대 부산점과 신세계 광주점은 開店 1개월만에 地域 賣出 順位 1위를 차지하였음
- 地方 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長期的으로 두가지 측

면에서 예상할 수 있음

- 유통업은 生産 機能이 없는 消費性 産業으로서, 有名 브랜드 選好에 따른 상품력의 서울 依存과, 資金의 서울 集中 현상 심화 등이 우려됨
- 그러나 消費者들은 보다 폭넓은 商品 購買 機會와 良質의 서비스를 얻을 수 있음

경쟁업체, 지방업체 및 외국업체의 진출과 신종 업체에 대한 대응 필요

○ 向後 展望

- 지방 진출을 進行·計劃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특히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의 움직임이 주목됨
 - 두 업체는 5개 광역시를 비롯하여 人口 50만 명 이상인 대부분의 도시에 新規 店鋪 設立을 계획하고 있음
 - 知名度가 成敗를 좌우하는 유통업의 특성상, 두 업체의 활발한 行步는 지방 상권의 先占이라는 측면에서 後發 業體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서울 所在 대형업체의 지방 진출이 加速化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본거지를 둔 지방업체의 對應이 거셀 것으로 예상됨
 - 동아백화점의 경우, 기존 대구 지역의 新規 店鋪를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 中小都市로의 出店도 활발함
 - 청구와 대구백화점처럼 서울 逆진출을 통해 대형업체에 對應하는 지방업체도 많음
 - 특히 지방업체들은 대형업체와 競爭에 있어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價格 破壞'를 내세우는 新種 業態로 맞서는 경우가 많음
- 외국업체의 본격적인 國內 進出에 대한 對策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현재까지는 할인점, 편의점 등에 注力하고 있으나 내년의 全面 開放에 즈음하여서는 百貨店 業종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

(곽 용 선)